

유곡리·楡谷里

## 유곡리·楡谷里

유곡리는 송악면의 한 마을로 사구시와 느릅실로 나뉘며, 마을 총 인구는 457명으로 총 148호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봉곡사가 있고 봉공사에 불화 1점이 있으며, 유곡리는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느릅나무가 있었으므로 느릅실 또는 유곡리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기소, 심곡리, 신성리를 병합하여 유곡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 유곡리 위치도 >



### ☒ 사구시, 느릅실마을(유곡리)

유곡1리는 사구시와 깊은골, 신성강쟁이로 이루어 졌으며, 사구시 마을은 원래 사기소라 불리우다 변형되어 사구시로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이 불리게 된 이유는 마을에 사기를 굽던 곳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신성 강쟁이 마을은 뒷산 너머 강재이라는 같은 마을이 었으나 일제때부터 구역을 나누면서 유곡리에 속하게 되었다.

유곡2리는 적지미와 느릅실로 나뉘는데 흔히 느릅실로 불리우고 있으며, 유곡리라는 명칭도 느릅실마을로 인해 지어진 것으로 옛날 느릅실에는 느릅나무가 무척이나 많았다고 하며, 적지미는 느릅실 아래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땅이 붉은 색이라 하여 유래되었다.

十 봉곡사 대웅전 및 고방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323호로 송악면 유곡리 산 6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동으로 1993년 7월 20일에 지정되었고 관리 및 소유자는 봉곡사이다.

이 건축물은 조선 시대의 승랍과 지리지에는 "석암사"라 했는데 1929년간 환여승랍에 "봉곡사"라 한 것으로 보아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사찰 입구 안내판에 「신라 51대 진성여왕 원년 (887) 2월에 도선국사가 창건하고 고려

18대 의종 (1170)때에 보조 국사가 증창했으며, 태종조 (1419)에 합허 대사가 삼창하였는데 이때는 상암, 벽련암, 보명암, 태화암등의 암자가 있었으나 임진왜란때에 본전과 여섯 암자가 폐허된 것을 인조 24년 (1647) 다시 증창하고 정조 18년(1794) 중수하여 봉곡사라 개칭했다. 고종 7년(1891)서 봉화상이 법당 및 요사를 중수 현존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만공선사께서 을미면 (1894) 7월에 법계성을 깨닫고 오도송을 읊은 불교성지로 유명하다.

#### 十 봉곡사 불화

봉곡사 불화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242호로 봉곡사에 있으며, 1984년 5월 17일에 지정 되었고 소유 및 관리자는 봉곡사로 되어 있으며, 관음 불상을 그린 그림으로 확실한 제작년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길이 75cm, 폭 4cm이다.

#### < 조사당시 유곡리 마을 관련 사진 >



#### 1) 위 치

사구시 마을은 위도 36-42-20, 경도 126-59-4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유구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좌측으로 봉곡사라는 팻말이 눈에 띄는데 그 방향으로 가면 앞에 나타나는 마을이 사구시이다.

사구시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300m정도 올라가면 우측으로 마을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느릅실과 적지미 마을이다.

#### 2) 현 황

사구시 마을의 인구는 총 228명으로 남자 123명, 여자 105명이다. 총 76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 약 9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는 공무원이다.

느릅실 마을은 총 229명으로 사구시와 비슷하며, 남자 118명, 여자 111명이 살고 있으며, 72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그리고 98%가 농업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사구시마을	228명	123명	105명
느릅실마을	229명	118명	111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공무원
사구시마을	100%	99%	1%
느릅실마을	100%	98%	2%

사구시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보면 논과 밭으로 구분되는데 논 28.2ha, 밭 28.6ha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농기계 현황을 보면 경운기, 이앙기, 예취기가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농기계들도 조금씩 보유하고 있다. 마을의 문화시설은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느릅실 마을은 사구시 마을과 비슷한 면적으로 조사되었는데 논 29ha, 밭 26.4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등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사구시마을	56.8ha	28.2ha	28.6ha
느릅실마을	55.4ha	29ha	26.4ha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시설
사구시마을	1개소	1개소	-
느릅실마을	1개소	1개소	-

사구시 성씨별 분포를 보면 이씨와 김씨가 각각 26%, 1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강씨 8%, 조씨 4%, 오씨 4%, 박씨 4% 그리고 기타 성씨가 38%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층은 60대가 가장 두드러지게 분포하며, 다른 시골마을과 비슷한 현상이다.

느릅실 마을의 성씨별 분포 조사로는 김씨 25%, 이씨 11%, 주씨 11%등이 많은 편이며, 다양한 성씨들로 구성 되어진다. 그리고 연령층은 사구시 마을과 비슷하게 조사 되었다.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강씨	김씨	이씨	조씨	오씨	박씨	주씨	기타
사구시마을	76호	6호	12호	20호	3호	3호	3호	-	29호
느릅실마을	72호	1호	18호	8호	2호	-	4호	8호	31호

- 최고령자

사구시 마을의 최고령자는 강원식 할아버지로 87세이시며,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시다. 느릅실 마을에서의 최고령자는 방씨 할머니로 88세이시다.

### 3) 자연 경관

사구시 입구를 들어서면 아직 오염되지 않은 물이 흐르는 냇가가 나오고 마을 앞 큰 느티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느티나무는 500년이 되었다고 팻말에 적혀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약 800년쯤 되었을것이라고 한다. 마을은 봉곡사까지 들어가면서 드문드문 모여 살고 있으며, 마을이 매우 길다. 봉곡사는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봉곡사를 올라가는 길에는 소나무 숲으로 올라가면 엄숙해질만큼 조용하고 산세가 수려하다. 느릅실 마을은 뒤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평야로 마을 앞으로 냇가가 있다.

### 4) 마을 변천과정

유곡리는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느릅나무가 많이 있었으므로 느릅실, 또는 유곡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기리, 심곡리, 신성리를 병합하여 유곡리라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 시통합으로 아산시 송악면으로 개편되었다.

### 5) 입 향

사구시 마을의 원거인은 예안 이씨의 선조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예안 이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 뒷산으로 예안이씨의 선조묘가 있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 생각으로는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600년경 약 400년전인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느릅실 마을은 사구시의 마을보다 먼저 생겼는지 비슷한 시기에 형성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래 김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하는데 그의 후손들이 현재로서는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고, 느릅실 마을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적지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느릅실에서 옮겨가 살아 느릅실에는 중가가 대부분이다.

### 6) 지 명

#### 十 사구시 마을 지명

·낭떨어지 강정이(신성 강쟁이) : 신성 서쪽에 있는 마을. 입구가 낭떠러지로 되었으며, 두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은 강장리에 소속이 되었음.

·봉수산 : 유곡, 송악, 건산리와 여산군과 공주군에 접한 534m의 산. 봉곡사가 있음.

·봉곡사 : 유곡리 봉수산 계곡에 있는 절. 선조 17년(1584) 3월에 화암거사가 중수하여 봉서암이라 고쳤다가 정조 18년(1794) 미경. 각준 두 사람이 대웅전을 중수하여 봉곡사로 고쳤음. 이 절에 길이 75cm, 넓이 43cm되는 관음불의 화상이 있는데, 1909년에 주지가 병이 들어 일인에게 약을 얻어 먹고 병을 고친 고마운 뜻으로 이 그림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1985년에 도로 찾아 왔음.

·사기소 : 적지미 북쪽에 있는 마을. 이조때 사기를 만드는 사기소를 두었음.

·신성 : 사기소 서쪽에 있는 마을. 우운, 강 정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함.

·낭떨어지 : 신성 입구에 있는 낭떨어지.

·깊은골 : 봉곡사 밑에 있는 마을로 25호가 살고 있음.

·느티나무 정자(도지정 보호수) : 사기소 마을 앞에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 정자가 있음. 매년 음력정월 그믐날엔 마을에서 노신제를 지냈음.

·분청사기 요지 : 사기소 마을 뒷산에 있다. 분청사기편이 발견됨.

·지풍골 : 봉곡사가 있는 마을로 깊은 산골짜기에 있었다하여 깊은 골이라 했는데 변하여 지풍골이라 함.

#### 十 느릅실 마을 지명

·느릅실 : 옛부터 느릅나무가 많이 있었다 하여 느릅실이라 함.

·장승거리 : 마을 앞에 옛날 성황당이 있던 자리를 일컬음

·쏘디장고랑 : 마을 뒷편 산신제를 지내던 고랑

·절터 : 느릅실 뒷산에 있는 절이 있던 터, 빈대가 너무 많아 없어졌다고 함

·맷돌개바위 : 바위 형태가 마치 맷돌처럼 생겼다하여 불리게 됨.

·동후실 : 적지미 맞은편에 있는 산. 마치 자라목처럼 생겼다 함.

·적지미 : 느릅실 아래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땅이 붉은 색이라 하여 적지미라 함.

·칠은사 : 적지미에 있는 절. 퇴 호 이절렬이 동지 군수 조유, 치운 이주상, 악재 정인호, 월암 조희동, 성암 윤필, 화은 안숙, 화암 이 진상으로 더불어 형제 결의하고 애국 운동을 하다가 한일 합병 때 순국하였는데 1914년 이 집을 짓고 이상 일곱 사람의 영정을 봉안 하였음.

## 7) 전 설

### 十 마을 느티나무(사구시 마을)

마을에서는 노신제와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정월 그믐날 두 제사를 모두 지낸다고 한다. 노신제를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언젠가 제사를 지내다 한동안 안 지냈는데 어느날 느티나무 안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그 불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 되었으며 그후로 아무 이유없이 마을 청년들이 10명 정도가 죽어 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노신제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하여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 지내고 있다. 산신제는 별도로 지내고 있는 산제당이 있다.

### 十 봉곡사에 있는 부처님(사구시 마을)

6.25때 부상당한 군인 2명이 봉곡사에 와서 쓰러졌다. 쓰러진 군인은 스님께서 지하 법당에 숨겨 치료를 했다. 그런데 괴뢰군이 봉곡사에 들이 닦쳤다. 괴뢰군은 두명의 군인과 주지스님을 끌어와 갖은 고문을 하였지만 괴뢰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자 화가 난 괴뢰군 한명이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빗나가 부처님 몸에 맞아 그 총알이 다시 튕겨 나와 총을 쏜 괴뢰군의 가슴을 뚫었다.

나머지 한 명의 괴뢰군도 화가 나 총을 쏘았지만 그 총알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몸에 맞고 다시 튕겨 괴뢰군의 가슴을 명중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군인과 주지스님이 살아났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十 베틀 바위(사구시 마을)

① 옛날에 여러 전쟁이 있을 당시 피난민들이 기거하여 베를 짰다는 설이 전하여 오고 있으며, 바위 밑에는 방 한칸만한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이들이 기어들어갈 정도의 공간만이 남아 있다. 또한 바위 형태가 베틀과 흡사하다 하여 '베틀바위'라 전하고 있다

② 큰 전쟁이 있었던 당시 이 마을에는 극히 초라한 아낙네가 베를 짜고 있었다.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고, 그나마 어려운 살림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낙네의 고역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오직 한가닥 남편과의 재회를 믿으며 궁색한 살림을 꾸려 나갔으니 이렇게 횡수를 더하는 동안 전쟁의 열도점점 식어갔다.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인의 애담은 여러해를 거듭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아낙네의 희망은 조금씩 꺼져 갔으며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도 아낙네는 남편의 생존만을 믿으며 온 정성을 다해 불공까지 드렸다. 하지만 세월은 아낙네의 머리를 백발로 덮었으며 이 풀수 없는 한은 베틀에 담아서 지워지지 않는 염원만 바위로 변했다. 이 바위가 베틀과 흡사해 '베틀바위'라 칭하기도 하며 그 정기를 받아 그 주위에 있는 마을명이 베틀 조각품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며 아낙네의 모든 정성과 남편을 만날 수 없는 한의 표상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 十 느릅실 마을 전설

느릅실 맞은편 산을 동후실이라 부르는데 이산은 마치 자라목처럼 생겨 지관들이 이곳에 장군이 날 것이라 했는데 일본인들이 자라목 부분에 맥을 끊어 장군이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사구시 마을에서 하고 있는 전통놀이는 없으나 매월 정월 초에 길일을 골라 노신제와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본래 한동안 지내다 도중에 지내지 않자 마을에 불길한 일들이 생겨 다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느릅실 마을은 장승거리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소원을 빌며 제를 지내곤 했는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포장으로 없어지게 되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중요시 여겨 지내왔는데 그곳에는 동으로 만든 말이 형상이 제당 옆에 있었는데 이는 산신령이 말을 타고 내려온다고들 믿어 만든것이라 한다. 산신제는 동지 지난 이후로 길일을 골라 지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동으로 만든 말도 없어졌다고 한다.

####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사구시 마을에는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이 없지만, 적지미 마을에는 칠인사라하는 기념각이 있는데 이는 옛날 7명의 형제가 결의를 하고 애국운동을 하다가 한일합방때 순국하였는데 이곳에 집을 짓고 일곱사람의 영정을 봉안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그의 후손들이 모여 4월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분들의 정확한 이름과 내력은 알 수가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몸바친 분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10) 종교단체

마을에 있는 종교단체로는 기독교는 삼진교회가 있어 신도수는 14명이며, 불교로는 오래된 사찰인 봉곡사가 있어 신도수는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 11) 공장현황

사구시에 있는 공장은 벽지와 장판을 생산하는 업체였으나 현재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대륙제관이라하여 부탄가스를 생산하던 곳이었으나 아산쪽으로 이전을 하였다.

力조은가업- 유곡 32, 허가일 97.7.4., 면적 9,382(미착공) 벽지 및 장판

#### 12) 마을의 특성

사구시 마을은 사구시, 깊은골, 신성강쟁이로 나뉘는데 거리가 서로간에 많이 떨어져 있어 같은 리라 할지라도 애경사시 따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왕래가 활발하지 않은편이다. 이번에 강장리와 신성강쟁이 마을 산을 뚫어 도로를 내기 위해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서로 왕래가 쉽도록 도로가 날 것으로 생각되며, 봉곡사가 있으며, 사기소 뒤편에 분청사기 요지가 있어 분청사기편이 발견되고 있는 시골 마을의 정취가 남아 있는 마을이다.

느릅실 마을은 대부분이 느릅실에는 대부분이 종가집이 많고, 적지미에 작은집이 사는 집들이 많아 애경사시 친인척간에 왕래가 쉬운편이며, 모두 자기일처럼 돕는 정이 남아 있었다.